

# “언니 따라 왔다가 저의 재능 발견했어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2012년 신입단원 모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1월 중순 토요일 오후,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에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청소년 10여 명이 모여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불교계 유일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합창단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원들로 매주 토·일요일 황학현 단장과 지휘자 혜승 스님(한마음선원)의 지도 아래 노래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불교계 합창단이지만 이들은 반드시 찬불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사랑으로’처럼 가요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캐럴을 연습하는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연습한 실력으로 합창단은 매년 20~30회 전국의 사찰행사와 주요종교행사, 연등제 등에 참석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한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단장 황학현)은 구립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을 공연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황학현 단장은 “부모은중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경와대 교목문화수석)이 곡을 붙인 것으로 바흐, 헨델의 종교 칸타타에 버금가는 정통 불교 칸타타로 평가 받았다”며 “특히 출연진 전원은 어린이, 청소년들로 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른들의 오감을 맑게 씻어 주고 효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은 1993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토·일요일 합창연습을 한다. 지휘자 혜승 스님과 단원들 모습

8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키우는 일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창단한 단체다.

합창단은 해마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예술적인 성장과 함께 60여 건의 공연을 배출하는 동시에 음반을 출판해 불교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합창단은 2009년 창단 17주년을 맞이해 민족종교로서의 자존심을 고취하고 불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불교에 능 범인(사)해피월드(이사장 조격)를 설립해 불교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노래와 무용에 소질이 없어도 예술을 좋아하는 초·중고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취미로 노래와 무용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성악전공자들을 배출하는 등 전문적으로 단원들을 키우고 있다.

김정우(교2) 양은 성악전공을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우 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친한 언니를 따라

## 불교계 유일 어린이·청소년 합창단

잠재력 있는 학생 60명 재능 키워

성악·예술 전공자로 양성

2013년 20주년 해외공연 준비

합창단에 가입했다. 주말마다 노래연습과 공연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노래에 재미가 붙었다”며 “노래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단장님께서 내 재능을 발견해주셔서 새로운 길을 찾게 돼 좋다”고 말했다.

합창단 활동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를 넓혀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시연(교2)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합창단 활동을 했다. 이곳에는 전국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노래 연습하고 배우는 것도 매우 재밌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2012 신입단



구립 24일 개최된 ‘부모은중송’ 공연

원을 수시 모집한다. 응모단정하고 노래와 무용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무용과 재즈·합창을 가르친다. 특히 8월 제주도 공연과 미국 순회 공연이 확정돼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황학현 단장은 “예술단에 소속된 단원 중 예중·고·대학 진학 또는 신화원 교육을 희망하는 단원들의 출석율을 평가해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불교음악지도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02)725-7849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영해약탄 선사 ‘외 심어 외 만다(種瓜得瓜)’

## 어떤 밭에 무슨 종자를 심는가

種瓜數畝發黃花 (종과수묘발황화)  
先發將衰後發嘉 (선발장쇠후발가)  
露濕叢中青葉茂 (노습중중청엽무)  
雨澆塋上綠枝加 (우요배상녹지가)  
蔓草尺許長兼短 (만경척허장겸단)  
結果寸餘豎復斜 (결과촌여수부사)  
形似龍蹄色似錦 (형사룡제색사금)  
令兒採得供親家 (영아채득공친가)

외를 심은 몇 이랑에 노랗게 핀 꽃 먼저 꽃 지러하자 나중 꽃 끝네. 이슬 젖은 떨기 푸른 잎 무성하고 비로 기름진 두둑 푸른 가지 더하네. 째따랄라게 뻗은 넝쿨 길기도 짧기도 쪼그맣게 달린 열매 셋거나 누웠네. 용 발굽 인 듯 비단 빛깔 인 듯 아이에게 따게 해 부모께 공양하네.

조선 영해약탄(影海若坦; 1668~1754) 스님이 22세 때 무용 스님에게 처음 참학했는데 이 시는 그 때에 준 시제에 응하여 지은 작품으로 인과법(因果法)을 외가 자라나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해 순차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외를 심었기 때문에 꽃이 피었으나 지고 피는 시기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나 근기가 각각 달라 현행하는 것이 같지 않음의 비유이다.

육도에서 자라난 오밀조밀한 새싹 무더기가 이슬과 비라는 연(緣)을 만나 무성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음에 길고 짧음과 가로세로가 있다. 선지식 등 외연(外緣)에 의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키워나가고, 중생의 마음 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발현됨을 보인 것이다.

이제 각각의 모양과 빛깔로 영글어진

열매를 따다가 어버이께 공양한다. 자기가 일궈낸 법의 향기를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영해라는 자신의 인(因)이 무용 스님이라는 선지식의 연(緣)을 만났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용의 발공과 비단 같은 아름다움에 비유했으며 그 깨달음은 곧 중생을 위함이라는 스님의 서원까지 실었다.

《화엄경》에 “보리심은 불법을 자라게 하는 종자와 같으며 중생의 맑고 깨끗한 법을 잘 성장시키는 좋은 밭”이라 하였다. 나는 지금

까지 어떤 밭에 무슨 종자를 심었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무엇에 쓰고 있을까?

원법 스님(운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사리)



## 조선의 아픔이 말을 건네다

사진가 이재갑의 ‘상처 위로 핀 꽃’展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이 강제 징용된 조선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 ‘상처 위로 핀 꽃’전을 연다. 이재갑은 1996년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일본에서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작가는 흐르는 시간의 자취와 변화는 사람의 형태에 대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령처럼 떠도는 잔영들을 불러내고 있다.

이재갑은 “길 위에서 발견한 조선의 아픈 역사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론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내게 말을 건넌다”며 “도처에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당시의 일상들은 아직도 내게는 생생하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후쿠오카 조선 초·중급학교: 2004년 4월 이전까지 사용하던 후쿠오카 제일조선인학교 운동장으로 우리 정서가 스며들어 천태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우렁찬 기상과 힘이 느껴진다.

전시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당시 고통의 시간들을 현대에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전시는 서울 견지동 스페이스99에서 2월 10일까지 연다. (02)735-5811~2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 “20주년 공연위해 많은 학생 모였으면”

“해피월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진로를 열어주고 불교 음악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학현 단장(사진)은 불교교육자, 불교음악가이면서 찬불가사를 쓰는 작사가다.

황 단장은 20여 년간 불교교육연구원을 이끌면서 불교어린이·청소년교육의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조계사 어린이법회를 20여 년간 지도하면서 전국 불교어린이교육의 선구적 모범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황 단장은 현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화계사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황학현 단장은 찬불가 작사가의 삶에도 매진하고 있다. 봉축찬불가로 유명한 《오늘은 좋은 날》《길 떠나자》 등 600편의 찬불가 노랫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에 가장 정열을 쏟고 있다.

2013년 창단 20주년을 앞두고 황 단장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리틀엔젤스처럼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20~30명의 단원으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기에겐 벽찬 면이 있다.

황 단장은 “단원이 많아 학생들을 선별하고 공연에 출연시킬 수 있다. 이번엔 단원이 많이 모집돼 교육반, 연주반 나누어 체계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20주년 기념으로 북미지역에서 공연은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단장은 “단원이 많아짐과 동시에 운영규모도 늘려야 한다. 현재 1080명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 당 1만원씩만 모아도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이 발굴해 키워낼 수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www.weart.or.kr

이나라 기자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상쾌! 가뿐!

**new**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금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 다리, 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 즉시 배달 (1~2일) www.BB21.com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 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 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무 조고담 교무 전지암  
재무 김미산 사회 박처명  
사부대중일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총재 김구해

회장 마일운 부회장 최원허  
총무 조고담 교무 전지암  
재무 김미산 사회 박처명  
홍보 김효천 실장 황정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일동

영산재 보존회 부설 **육천범음대학**

학장 최원허 실장 김혜련  
육천범음대학 학생 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다라니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한국서림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율과사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깊이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힘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